

빛고을 전사들 올 시즌 일낸다

〈광주FC〉

中 전지훈련 등 연습경기서 15승 7무 무패행진 박기동·김동섭·박현 삼각편대 절정의 골 감각

중국에서 전지훈련 중인 광주 FC가 2011 K리그 무대를 위한 패기 넘치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중국 톈밍으로 해외 전지훈련을 떠났던 광주는 5일부터 상하이에 2차 캠프를 꾸리고 전력 가다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지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가는 등 쾌청한 날씨가 이어진 8일, 광주는 상하이 선화구장에서 5대2 패스게임과 전술 훈련 등을 하면서 가볍게 몸을 풀었다.

선수단 분위기는 좋다. 최상의 날씨와 구장에서 훈련이 진행되면서 선수단의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속도가 붙었다. 체력과 기술 모두 급상승하면서 광주의 첫 해외 전지훈련은 '이상무'다.

연습경기에서 무패행진이 계속되면서 선수단 사기도 오르고 있다.

광주는 7일 중국 상하이 선화 연습구장에서 열린 상하이 동아와의 연습경기에서 안성남, 임선영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상하이 동아는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2부리그 팀이지만 갑급(1부리그) 실력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 강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1부리그 상하이 선화도 최근 동아와의 4차례 연습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만큼 탄탄한 조직력을 과시하고 있다.

광주는 이날 동아를 상대로 승을 추가하며 연습경기 전적이 15승 7무가 됐다. 지난해 12월 11일 호남대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외부

팀과 22차례의 대결을 벌여 패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광주는 22경기에서 38골을 몰아 넣었다. 박기동을 원톱으로 측면을 돕는 김동섭, 박현 등의 움직임이 좋다는 평가다.

김동섭은 6골 1도움을 기록하며 절정의 골 감각을 뽐내고 있고, 원톱인 박기동 역시 5골 5도움으로 패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박현도 4골 5도움을 기록하며 주전 자리를 예약했다. 철벽 수비진의 움직임도 무패행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최만희 감독은 "날씨와 연습구장, 음식 등 모든 환경이 최상이다. 힘든 훈련이 계속되고 있지만 선수들의 회복속도가 빠르고 하루가 멀게 발전하고 있다"며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광주는 상하이 선화, 상하이 동아 등 과 연습경기를 치른 뒤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중국 상하이에서 전지훈련중인 광주FC 선수단이 8일 상하이 선화구장에서 체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FC제공)



제92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 선수단이 8일 염주동 광주체육회서 결단식을 열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국 동계체전 15일 개막

동계 아시안게임(AG)의 열기를 이어갈 국내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동계체전이 15일 시작된다. 제92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과 강원, 전북 등지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선수단 3563명이 참가해 한겨울 열전을 벌인다.

광주는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스키, 빙상, 컬링, 바이애슬론 등 4개 종목에 총 115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전남은 5개 종목(빙상

피겨, 스피드 불참)에 170명의 선수단을 출전시킨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6일 끝난 카자흐스탄 알마티·아스타나 동계아시안게임의 스타들이 대거 출전에 눈길을 끈다.

알파인 슈퍼대회전과 활강 금메달리스트 김선주와 슈퍼컴바인드 우승자 정동현, 크로스컨트리 프리에서 정상에 오른 이채원이 스키 종목에서 아시아 정상급 기량을 과시할 전망이다.

빙상과 피겨 부문에서는 2관왕에 오른

광주 115명·전남 170명 참가
전북·강원 등서 4일간 열전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과 차세대 피겨요정 광민정도 다시 빙판 위에 오른다.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쇼트트랙 종합 1위에 오른 국가대표 선수들은 월드컵 대회 출전으로 불참하지만 승부조작 파동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됐던 쇼트트랙 스타 이정수와 광민정이 복귀한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스키점프와 프리스타일(모글)은 전시 종목으로 치러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구 명문’ 동신고교 국제대회 석권 나섰다

한국대표로 日 아제리아컵 출전

“한국을 대표해서 쉽게 물러나지 않는 끈질긴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정구 명문’ 동신고가 10일 일본에서 열리는 제 9회 도꼬모 아제리아컵 국제정구대회를 위해 해외 원정길에 오른다.

이번 대회에는 한·중·대만 남녀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 등 모두 40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10·11일 현지 훈련을 하는 선수단은 12·13일 3복식 경기를 갖고 정상에 도전한다.

동신고는 지난해 경남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1위에 오르며 대회 출전권을 얻어 한국대표로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다. 동신고는 2006년 4회 아제리아컵 한국 대표로 나서 3위에 오른 경험이 있다.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의 주역이었던 3학년이 졸업하면서 전력이 다소 약화됐지만 동신고는 끈끈한 팀워크를 앞세워 입상을 노리고 있다.

선수단을 지휘하는 구자연 감독은 “지난 전국체전에서도 우승 전력이지 않더라도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선수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팀워크로 한데 뭉쳐 우승을 일구었다”며 “이번에도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고 평소의 기량을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실내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것이 동신고 행보의 변수다. 외부 코트에서 주로 경기를 해왔던 선수들은 마루 경기에 대비해 고내 실내 체육관에서 구슬땀을 흘려왔다.

선수단은 명문 전통을 잇기 위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동신고는 지난 2005년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대회 4연패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도 전국체전 단체전을 석권했다.

지난해 광주우 아시안게임 정구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대표팀 막내 이요한(21·대구 카톨릭대)도 동신고 출신. 이요한은 동신고 재학시절인 2008시즌 11관왕에 오르며 ‘정구 명문’의 명성을 과시했다.

주장 김한솔(18)은 “국제 무대에서 다른 선수들과 기량을 겨뤄볼 수 있게 돼서 긴장도 되고 또 기쁘다”며 “선수들 모두 지지 말자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태극전사 새 캡틴 박주영 “동료들 뒷받침하겠다”

조감독, 플레이코치 역할 주문

“선수들을 대표하는 선수인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동료들이 대표팀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간판 공격수 박주영(26·AS 모나코)이 대표팀의 새로운 ‘캡틴’이 됐다.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은 8일(이하 한국 시간) 아시안컵을 마지막으로 대표팀에서 물러난 박지성(30·맨체스터유나이티드)을 이을 차기 주장으로 박주영이 낙점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표팀 주장은 최고참 선수가 맡

는 것이 관례나 다름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대표팀 최연소 주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2008년 27세 나이로 처음 주장 완장을 차던 박지성이나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도중 역시 27세에 발탁된 유상철, 28세 때인 2005년에 주장을 맡았던 김남일 정도가 그나마 나이와 상관없이 주장으로 뽑혔던 경우다.

대표팀 안팎에서도 박주영은 꾸준한 차기 주장 적임자로 거론됐다. 경력이나 실력은 물론이고 어린 후배들을 끌어모으는 리더십도 갖췄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내다

보면 어린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조 감독은 “대표 선수들을 합심된 팀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필드에서 플레이 코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박주영을 주장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정식 주장으로는 처음으로 8일 훈련에 합류한 박주영은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했다”며 부담이 컸음을 드러냈다. 이어 “대표팀 주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감독님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했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주셔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kjmarathon.co.kr



2011년 마라톤의 시작은 3월 1일 광주에서

제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2011. 3. 1 | 화 08:30~16:00
풀코스 출발 09:00

장 소 | 광주월드컵경기장 - 남평교

대회종목 | 5km, 하프코스, 풀코스

접수마감 | 2011년 2월 14일 (월)

- 참가비
 - 풀·하프 : 20,000원
 - 5km : 10,000원
- 단체참가 특전: 지원금 지급
 - 하프코스 이상 50인 이상 참가단체 : 20만원
 - 하프코스 이상 30인 이상 참가단체 : 10만원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광주일보사)
 - 광주은행 001-107-437903
 - 국민은행 551-01-1468-999
 - 농협 617-17-002371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jmarathon.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

주 관 | 광주육상경기연맹·전남육상경기연맹

후 원 | 광주지방보훈청·광주지방경찰청·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광주남부경찰서·나주경찰서

참가문의 | 062-220-0541